

녹지지역 층수 완화 · 공동주택 허용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포... 3층~4층까지 허용 · 연립 · 다세대주택 건축 등 가능

앞으로 전주시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물 층수가 4층까지 허용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축이 가능해졌다. 전주시는 녹지지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녹지지역의 층수 완화 및 공동주택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주요 내용은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가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이 허용된 것이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임목축적은 기존 60% 미만에서 120% 미만으로 완화되고, 표고가 7m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하던 사항을 100m 이상일 경우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기존 15도 미만의 경사도에 한 해 허가하던 것을 완화해 경사도 15도 이상 17도 미만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초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지역

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 면적의 10% 미만이 20도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한 사항을 자연녹지지역까지 확대 적용토록 했다.

시는 녹지지역 내 적절한 기반 시설 설치가 이뤄지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개발행위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민선8기 출범 이후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사유 토지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핀 후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바랄 것은 과감히 개혁하고,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3일 덕진구 도도동에 조성된 공영 도시농업 체험농장 ‘도란도란’에서 텃밭 개장식을 가졌다.

텃밭 이웃들과 소통하는 즐거움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체험농장 운영

전주시 도도동에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이웃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배울 수 있는 공영 도시농업 체험농장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는 지난 13일 덕진구 도도동 238번지 일원(7000㎡)에 조성된 공영 도시농업 체험농장 ‘도란도란’에서 텃밭 개장식을 가졌다.

앞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부터 선착순 모집을 통해 회원모집을 받아 총 62가구 220여 명을 도시농업 체험농장 도란도란의 회원으로 선정했으며, 이날 개장식에 참여한 회원들은 1년 동안 사용하

게 될 텃밭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정받고 가구마다 간단하게 식재 체험을 진행했다. 이날 개장식에 참여한 한 회원은 “가족들과 함께 농사 교육도 받고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겨서 기쁘고 빨리 수확을 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도시농업 체험농장에서 다양한 가족, 이웃들이 모여 소통의 즐거움과 농업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건강한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 종합경기장 석면철거 착수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철거를 위해 우선 15일부터 건물 내부의 천장과 벽체에 있는 석면철거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종합경기장 주경기장의 철거를 위해 실시설계 및 건축위원회 해체계획심사와 기술자문위원회, 계약심사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시는 안전한 석면 해체 · 제거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경기장 주변으로 안전피와 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한다. 또, 외부의 출입을 막기 위해 경기장 출입문과 각 실에 시건장치를 설치했다.

석면철거 해체 · 제거 공사는 석면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건물 내부 보양 작업을 시작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종합경기장은 단점 · 단수가 이뤄져 화장실 등 내부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석면철거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거작업을 잠시 멈추고 열티팅 뮤지컬페스티벌과 가막축제(8월), 전주페스타(10월) 등 대규모 행사와 지역 문화 축제, 시민 행사를 위한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종합경기장 철거가 완료되면 내년 7월부터는 부가가치가 높은 MICE 산업 중심의 복합공간인 전시킨벤션센터 건립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철거를 위해 우선 15일부터 건물 내부의 천장과 벽체에 있는 석면철거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종합경기장 철거공사와 부지가 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종합경기장 철거와 전주의 새로운 전시킨벤션센터 건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북 성주류화 특화사업 공모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가 4월 16일부터 5월 10일까지 2024 전북 성주류화 특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시 · 군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지정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에서는 전북지역 특성에 맞는 성주류화 정책 우수모형을 발굴 · 확산하고, 시군의 상황을 고려한 성주류화 특화사업을 공모한다.

전경의 원장은 “이번 사업은 전북지역의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정책 환경 분석을 통해 성주류화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우수모형을 발굴하는 기회로 삼아 정책의 성주류화와 양성평등 실현이 가능하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063-254-9470)로 문의하면 된다.

중화산2동 적십자봉사회, 사랑의 제빵 나눔 봉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2동 적십자봉사회가 15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회도지사 빵 나눔터에서 사랑의 제빵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 적십자봉사회(회장 이주진)가 15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회도지사 빵 나눔터에서 사랑의 제빵 나눔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활동은 중화산2동 적십자봉사회 봉사원 13명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이 참여했으며, 직접 만든 카스테라 200개를 취약계층 및 경로당에 전달했다.

이주진 회장은 “이번 자리는 이기동 의장님이 함께 해주셔서 더 뜻깊었던 자리였다”며 “정성스럽게 직접 만든 빵을 받아보시고 우리 이웃들이 행복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화산2동 적십자봉사회는 제빵 활동, 밑반찬 나눔, 급식 봉사, 세탁 봉사,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 5월 2일까지 297곳 대상 현장 점검 실시

전주시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 폐기물 배출공사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5월 2일까지 지역 내 건설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상으로 건설 폐기물 보관상태 등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득한 건축공사장과 토목공사장 등 297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기연성과 비기연성 구분 여부 △보관시설 덮개 설치 여부 △보관 기간 초과 여부 등 수집운반 처리업체에 배출하기 전 보관상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배출장소에서 보관기간(90일)을 초과해 장기

방치하는 사례를 집중해서 들여다보기로 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3월에도 폐기물 수집운반업 8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폐기물 처리 신고 미이행 등을 사유로 고발 및 과태료 등 5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앞으로도 폐기물 배출자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